

正祖를 弔喪한 百韻挽詞

呂運弼*

1. 조선 후기의 백운만사 전통과 <健陵輓詞>
2. <건릉만사>의 전문
3. 형식과 내용의 특성

<국문초록>

18세기 초에 希菴 蔡彭胤이 松谷 李瑞雨를 조상한 <松坡李參判輓 七言百韻>을 지은 데서 발원된 남인시인이 남인선배를 조상한 백운만사를 7수에 이르도록 이어진 전통은 우리 한시사의 一大奇事라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간과하기 어려운 시사적 의의를 지닌 백운만사는 남인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노론시인이 지은 작품도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세기 말의 시인인 윤행임이 지은 7언배울 백운만사인 <健陵輓詞>는 노론시파에 속하는 시인이 지은 작품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탁월한 군주였던 正祖를 곡만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크다.

이 논문은 석재 윤행임의 7언배울 백운만사인 <건릉만사>의 전문을 역주한 데 이어, 작품이 지닌 형식적·내용적 특성을 비평적으로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석재의 <건릉만사>가 지닌 압운·평측·대장 등 제반 형

* 신라대학교 문예창작비평학과 교수.

식적 측면, 의미구조 및 그 세부적 전개양상, 표현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7언율시 25수로 이루어진 200구에 이르는 장편배율인 이 작품은 곡만시 일반은 물론이고 시인이 오래 近侍하였던 뛰어난 군주를 위한 애도시에 요구되는 여러 제약과 난점을 극복하고 수작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시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장편배율, 백운만시, 석재 윤행임, <건릉만사>, 정조, 수작

1. 조선 후기의 百韻挽詞 전통과 <健陵輓詞>

初唐 때 성립된 排律은 盛唐人 杜甫가 百韻의 <秋日夔州詠懷 寄鄭監李廩客>(『九家集注杜詩』 권29)을 짓고, 中唐의 元稹·白居易가 그보다 長律도 흔히 應酬한 뒤로 웬만한 韻脚의 숫자만으로는 주목받기 어려운 詩體가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李奎報(1168~1241)의 삼백운배율 <次韻 吳東閣世文 呈誥院諸學士>(『東國李相國集』 권5)가 나왔는가 하면, 任叔英(1576~1623)은 <述懷 寄望江華李東岳使君>(『疎菴集』 권2)이라는 716운 716자에 이르는 超長篇 7언배율을 선보임으로써 천년의 걸작¹⁾, 또는 세계의 최장시²⁾로 평가받은 바 있었다. 장편배율이 挽詞에 채용되는 일 또한 明의 王世貞(1526~1590)이 李攀龍(1514~1570)을 애도한 <哭李于鱗一百二十韻>(『弇州四部稿』 권32)과 胡應麟(1551~1602)이 왕세정을 애도한 <輓 王元美先生二百四十韻>(『少室山房集』 권48)이 나온 뒤로는 드물지 않게 있었다.

장편배율의 이와 같은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18세기 초에 希菴 蔡彭胤이 松谷 李瑞雨를 哭挽한 <松坡李參判輓 七言百韻>(『希菴集』 권13)을 지은 데서 시작되어, 權萬이 蔡彭胤³⁾, 李獻慶이 채팽윤과 권만⁴⁾, 蔡濟恭이 吳光

1) 金得伸, 『終南叢志』. “其詩廣博奇僻, 眞千載傑作也. 雖以老杜大手, 尙至百韻, 後世詩人, 亦無如此大作, 而疎菴始創之, 其困廩之贍富也.”

2) 金相洪, 『世界 最長 漢詩 任叔英의 <述懷> 연구』, 『韓國 漢文學의 照明』(이희문화사, 2003), 230면.

運⁵⁾, 丁範祖가 申光洙⁶⁾, 申光河가 신광수⁷⁾를 弔喪한 百韻挽詞로 이어진 남인시단의 일련의 백운만시 전통은 東亞漢詩史의 一大奇事라 할 만하다. 李敏求(1589~1670)·蔡裕後(1599~1660)를 원류로 하여, 李瑞雨(1633~1709)→蔡彭胤(1669~1731)·吳尙濂(1680~1707)→吳光運(1689~1745)·姜樸(1690~1742)→申光洙(1712~1775)·李獻慶(1719~1791)·蔡濟恭(1720~1799)·丁範祖(1723~1801)·申光河(1729~1796)로 계승된 남인시맥의 적통이 작자이거나 그 애도대상이었던 이 시편들은 102운인 번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운, 즉 200구절로 된 5언, 또는 7언의 배율이다. 18세기의 남인문단에서 창시되고 繼述된 이와 같은 백운만시의 전통은 중국뿐 아니라 조선조의 다른 당색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이채로운 문학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고려 이래로 장편배율의 창작이 연면히 계승되어 온 연장선상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同黨의 선후배 대가들이 배율이라는 시체, 백운이라는 韻數, 哭挽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당파적 문예의식까지 공통으로 하여 펼친 이 이색적인 시사적 전통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사례를 적시하고 창작의 의의를 설명하는⁸⁾ 데 그친 채 자세히 검토되는 데 이른 바 없다. 아마 워낙 거편이라 한 작품만 자세히 검토하는 일조차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필자는 근년에 번암의 <藥山先生挽, 一百二韻>의 전편을 역주하여 실상을 제시하고 나서, 몇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한 비평적 논의를 덧붙임으로써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 바 있다.⁹⁾

그런데 백운만사는 18세기의 남인시인들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노론시인에 의해서도 백운만사가 지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君主를 곡만한 작품이라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碩齋 尹行憲의 <健陵輓詞>(『碩齋稿』 권2)가 그것인데, 그 대상이 조선조의 운명과 관련하여 무

3) 權萬, <用李松谷輓歌一百韻, 悼蔡希庵, 七言百韻>, 『江左集』 권3.

4) 李獻慶, <希菴先生輓, 百韻>, 『良翁集』 권8; <權梁山輓, 百韻>, 『良翁集』 권8.

5) 蔡濟恭, <藥山先生挽, 一百二韻>, 『樊巖集』 권4 『丹丘錄 下』.

6) 丁範祖, <石北申聖淵輓, 百韻>, 『海左集』 권5.

7) 申光河, <哭伯氏石北先生, 一百韻>, 『震澤集』 권3.

8) 白丞鎬, 『樊巖 蔡濟恭 文學 研究』(서울대 석사논문, 2006), 43면.

9) 呂運弼, 『長篇挽詩의 한 면모』, 『백양인문논총』 18(신라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世를 특히 통탄케 하는 군주인 正祖이니 더욱 그러하다.

정조는 재위 23년(1800) 6월 28일에 운명하여 11월 8일에 유언대로 부왕의 園寢 顯隆園 동쪽의 산등성이인 健陵에 묻혔는데, 아직 장년인 49세에 급서한 그의 붕어를 맞아 슬픔을 표한 신하들의 만사는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예로는 洪良浩(1724~1802)의 <正宗大王輓詞>(『耳溪集』 권9, 7언율시 10수), 金載瓚(1746~1827)의 <正宗大王輓章>(『海石遺稿』 권4, 5언율시 10수), 徐滢修(1749~1824)의 <正宗大王輓章>(『明阜全集』 권2, 7언율시 10수), 李時秀(1745~1821)의 <健陵輓詞>(『履園遺稿』 권70, 5언율시 20수, 弟晚秀代作), 朴齊家(1750~1805)의 <正宗大王輓詞>(『貞菴集』 권4, 5언율시 12수), 李晚秀(1750~1820)의 <健陵輓詞>(『履園遺稿』 권70, 5언배율), 南公轍(1760~1840)의 <正宗大王輓詞>(『金陵集』 권3, 7언절구 25수)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만사의 통념을 넘어설 만한 편폭을 지닌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시수·남공철의 경우에는 20수를 상회하는 首數로 되어 있어 이채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가운데 7언 20구에 이르는 윤행임의 <건릉만사>를 능가할 만큼 특이한 작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백운배율이라는 형식적 특이성과 7언으로 20구절을 내달린 표현·내용의 장점이 다른 작품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전문을 역주하고 비평적 이해를 덧붙여 소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선 작자의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尹行恉(1762~1801)은 본관이 南原, 초명이 行任, 자가 聖甫, 호가 碩齋로, 三學士 尹集의 五代孫, 龍安君 宗柱의 손자, 翊贊 龍恩君 琰의 아들이다. 21세이던 정조 6년(1782)의 별시문과에 병과로 등제하여 검열에 제수된 뒤 곧 抄啓文臣으로 선발되고 奎章閣 待教에 제수되는 등 주상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¹⁰⁾ 한 때 辟派의 탄핵을 받아 成歡에 유배되었으나 直閣으로 복직되어 급속도로 승진함에 따라 급제 후 십년 만인 1792년에 이조참의에 올랐다. 대사간을

10) 純祖가 5세 때 '行任'을 '行恉'으로 誤書한 실수를 계기로 주상께서 개명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碩齋라는 호를 하사했는가 하면, 운명에 앞서 세자의 보호와 墓誌의 찬술을 당부하는 등 정조와의 奇緣이 허다했다. 그것들이 순조 초 同黨인 노론에게 西學徒로 무고당해 죽음에 이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거쳐 이듬해에는 비변사 부제조로 특차되었다가 다시 이조참의를 맡았으나, 또 벽파의 공격을 받아 高陽에 유배되었다. 1794년에 해배되어 整理使가 된 데 이어, 皇壇大享의 헌관을 맡아 과오를 범한 일로 탄핵받아 파면되어 있던 때에 정조의 승하를 맞았다. 純祖 즉위 후 도승지에 발탁되고, 이조참판·홍문제학을 거쳐 이조판서에 오른 데 이어, 순조 원년 1월 실록청이 개국될 때에는 兩館 대제학을 겸대하는 등 관운이 순탄하였다. 그러나 수렴청정 중이던 정순대비와 노론벽파가 시과를 탄압하고자 일으킨 辛酉邪獄이 전개됨에 따라, 4월에는 예조판서로 옮겨지고, 5월에는 전라감사로 출보되는 등 시과의 요인인 탓에 신변에 압박이 가중되어, 6월에는 康津縣 薪智島에 유배되었고, 9월에는 任時發·尹可基의 흥서사건의 배후로 몰린 끝에 참형당하기에 이르렀다. 憲宗 초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哲宗朝에 文獻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정조가 사후를 부탄할 만큼 특별한 지우를 입은 인물인가 하면, 노론의 시과로서 徐滢修·南公轍·李崑秀 등과 깊이 교유하고 金祖淳·沈象奎와 함께 문체반정에 동참했던 인물로 기억할 만하다. 신지도 유배시에 지은 『薪湖隨筆』 20권이 포함된 『碩齋稿』 40권을 남겼다.

2. <건릉만사>의 전문

윤행임의 <건릉만사>는 100운으로 된 7언배율이므로 전편을 분단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지도록 제시해야 마땅하지만, 배율 또한 근체시라서 7언율시와 형식·내용상의 구조를 같이 함을 감안하고, 워낙 장편이라 독자들로서 하여금 원문과 역문을 대조하기 어렵게 하는 난점을 없애기 위하여, 7언율시 25수로 분단하여 제시하는 편의적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아래로 秦나라의 良人¹¹⁾이 갈 연로(羨路)¹²⁾는 없고

11) 秦良은 秦나라 穆公이 죽자 殉死한 3인의 良人을 가리키는데, 『詩經』 『秦風』 『黃鳥』는 이들의 죽음을 슬퍼한 노래라고 한다.

옷섰을 풀고¹³⁾ 말을 하려니 눈물과 눈물이 쏟아지네.
 어찌 다만 은총을 받음이 예로부터 드물 뿐이라?
 응당 덕행을 봄이 小臣과 같이 상세한 이는 없으리.
 程翁¹⁴⁾께 산악의 신이 내려온¹⁵⁾ 해에 세상에 태어나고
 晦父¹⁶⁾의 산이 무너진¹⁷⁾ 먼 곳으로 떠나셨네.¹⁸⁾
 의지할 곳 없는 신민을 하늘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¹⁹⁾
 이제 인자한 사람이 장수를 누린다²⁰⁾ 함은 이치가 얼마나 아득한가?
 下從無路羨秦良 敷衽嗽詞涕泗滂
 奚但受恩從古罕 應無覲德似臣詳
 程翁嶽降年生世 晦父山頽歲陟方
 無賴臣民天不吊 如今仁壽理何茫

다스려 태평하게 함²¹⁾을 반도 못 이루고 이 세상을 하직하셔서
 뜻하신 사업을 마치기 어려워졌으니 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네.
 만년을 누릴 땅을 점침에는 일찍이 뜻하신 바가 있었거니와
 늙기 전에 정자²²⁾를 낙성하심에는 어찌 그리 분망하셨던가?
 廟宇를 군자라 일컬음은 크게 정도를 따르심이다

12) 羨路는 羨道와 같은 말로 堦道·墓道이다.

13) 敷衽은 옷섰을 풀므로 솔직하게 진심을 말함을 비유한다.

14) 程翁은 北宋의 성리학자 程顥(1032~1085)의 존칭인데, 정호와 정조는 모두 壬申生이다.

15) 嶽降은 山嶽의 신이 내려옴으로 사람의 출생·탄신을 칭송할 때 쓰는 비유이다.

16) 晦父는 南宋의 성리학자 朱熹(1130~1200)의 별칭 晦菴의 존칭인데, 주희와 정조는 모두 庚申年에 타계하였다.

17) 山頽는 산이 무너짐으로 사람의 죽음을 완곡하게 비유한다.

18) 陟方은 먼 곳으로 떠남으로 제왕의 죽음을 비유한다.

19) 不吊는 하늘이 가없게 여기면서도 보호해 주지는 않음이다.

20) 『論語』『雍也』에 “지혜로운 이는 즐거워하고, 인자한 이는 장수한다.(知者樂, 仁者壽.”라는 孔子의 말이 있다.

21) 治平은 ‘治國平天下’의 준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함이다.

22) 亭子는 정조 14년(1790)에 華城의 行宮 앞에 세웠던 得中亭을 가리킨다.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로 정조가 직접 扁額을 쓰고, 上樑文은 홍양호가 짓고 썼다. 원래 洛南軒 자리에 세웠다가 4년 뒤에 현재의 위치로 移建했다. 창건년에 정조가 화살 4발을 다 적중한 일을 기념하여 ‘득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禮記』『射儀』의 “활을 쏘아 맞추면 제후가 될 수 있고, 쏘아서 맞추지 못하면 제후가 되지 못한다(射中則得爲諸侯, 射不中則不得爲諸侯.)”라는 글에서 ‘得’과 ‘中’을 따와서 지었다고 한다.

능원을 천체의 운행에서 취함은 스스로 힘쓰시고자 함이었네.

세손시절의 학문은 일찍이 『春著錄』²³⁾에서 드러났고

어린 나이에 먼저 아신 것은 『효경』의 편장이었다네.

治平未半哀斯世 志業難終籲彼蒼

地卜萬年曾有意 亭成未老若爲忙

廟稱君子大居正 陵取天行以自強

睿學夙彰春臥錄 冲齡先解孝經章

三統²⁴⁾의 天人과 性命을 잇고

一王²⁵⁾의 예악과 시서를 제정하셨네.

허공의 구름을 거두어서 조화로 귀결시키고

이 夏나라에 퍼서 윤상을 세우셨네.²⁶⁾

정엄한 공부는 밤마다 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간소한 예절로 깊은 밤에 다만 약시증만 받으셨네.

金籒²⁷⁾에 혈읍하시자 정성이 이미 하늘을 감동시켰는데

銀籒²⁸⁾의 天香²⁹⁾으로 총애가 거듭 빛나게 되었지.

天人性命承三統 禮樂詩書制一王

斂却虛雲歸造化 陳于時夏樹倫常

嚴工每夜常朝極 躡節深更獨侍湯

血泣金籒誠已格 天香銀籒寵仍煌

23) 『春著錄』은 정조가 세손 때 지은 시문에 붙인 편명으로 그의 문집 『弘齋全書』 권1~4에 실려 있다.

24) 三統은 夏·殷·周 三代의 正朔으로 天統·地統·人統을 가리킨다.

25) 一王은 一代의 王朝이다.

26) 이 구절은 『詩經』 『周頌』 <思文>의 “강상을 이 夏나라에 퍼셨네.(陳常于時夏)”라는 글을 접화한 것이다.

27) 金籒은 금속띠로 봉하여 문서를 보관하는 궤인데, 여기에서는 英祖가 思悼世子의 사후에 도승지 蔡濟恭에게 맡겼다는 상자를 가리키며, 그 안에는 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내용의 시구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28) 銀籒는 춘추전국시대에 秦나라에서 쓰이던 篆文과 유사한 書體이다.

29) 天香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최고급의 향, 또는 좋은 향이다.

동쪽성의 초목은 모두 눈물을 머금었는데³⁰⁾
 지난날의 노래는 다만 애가 끊어지게 할 뿐이네.
 수많은 袞鉞³¹⁾을 日記에 올리고
 자욱한³²⁾ 풍운을 春坊에 끌어들이셨네.
 정미한 의리는 반드시 내세까지 드리워지게 하시고
 내치기를 삼간³³⁾ 말씀은 오히려 大防³⁴⁾을 보이셨네.
 이제부터 漢나라의 사당에서는 굳센 武勇을 추념하리니
 옛날에 歐陽公은 漢議³⁵⁾를 물리쳤다네.³⁶⁾

東城草樹皆含涕	昔日謳歌祗斷腸
袞鉞昭森登日記	風雲鬱鬱引春坊
精微義要垂來世	恭黜言猶示大防
自是漢祠追建武	從來漢議絀歐陽

闕宮³⁷⁾에 상주하신 詩에는 인정과 문장이 극진하였고
 洛邑을 조성하신 도면에는 의지와 사업이 뚜렷하였네.
 의관을 차리고 달마다 근친하실 때에는 步輦이 따르고
 거가로 봄철에 순어하실 적에는 飛航³⁸⁾이 걸집하였네.
 더딘 저녁거동에는 구름이 같이 머물고
 온화한 旬齋에는 漏刻이 함께 길었네.
 작은 풀³⁹⁾의 효심으로 깊이 애모하여 세 번씩 침소로 문후드리고

30) 이 구절은 思悼世子를 都城 동쪽인 楊州에 장사지낸 일을 비유한 것이다.

31) 袞鉞은 賞으로 주는 袞衣와 벌을 내리는 斧鉞로 상벌을 비유한다.

32) 鬱鬱은 초목이 무성한 모양이다.

33) 恭黜은 내치기를 삼간다.

34) 大防은 큰 堤防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원칙적인 한계를 비유한다.

35) 漢議는 복송 때 漢王의 존호를 높이는 문제를 두고 조정에서 벌인 쟁론인데, 복왕은 英宗의 生父 趙允讓의 봉호이다. 그는 太宗의 손자 元份의 아들로 眞宗의 태자 祐의 사후에 養子가 되었다가, 仁宗이 태어나자 궁궐을 나가서 節度使·同平章事 등을 지내고 영종 즉위 후 복왕에 봉해졌다.

36) 이 구절은 歐陽脩가 복왕을 추송하자는 呂誨 등의 주장을 논박한 <漢議>를 2회 올린 일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다.

37) 闕宮은 임금의 神靈을 모신 사당이다.

38) 飛航은 매우 빠른 배로 侍衛軍이 타는 말을 비유한다.

서린 꽃을 늘 좋아하여 일곱 바퀴씩 술잔을 돌리셨네.

闕宮詩奏情文盡 洛邑圖成志事彰
 月觀衣冠隨步輦 春巡車駕結飛航
 遲遲夕蹕雲俱逗 優優旬齋漏爲長
 寸草愛深三問寢 蟠花喜動七巡觴

별빛이 두른 寶匣의 瑤冊⁴⁰을 올리고 나서

햇빛이 에워싼 아롱진 옷으로 翟裳⁴¹께 절하셨네.

行宮의 그물창⁴²에는 온통 상서로운 구름이요

陪京⁴³의 화류는 절로 아름다운 빛이었네.

君師가 하나로 합쳐지매 하늘이 장차 성군으로 만들려 하였고

萬物을 세 번씩 성취되게 하시니 시절 또한 창성하였네.

인척을 낮추고 현인을 높임을 확실히 본령으로 삼고

오늘을 참고하고 옛날을 酌量함을 모두 宏綱⁴⁴으로 하셨다네.

星周寶甲⁴⁵攀瑤冊 日繞斑衣拜翟裳
 行殿罕罍渾瑞靄 陪京花柳自韶光
 君師合一天將聖 品物登三世亦昌
 左戚右賢端本領 參今酌古舉宏綱

형상이 있는 큰 태평에 鱗介⁴⁶도 복종하고

소리 없는 큰 음악에 봉황이 내려왔네.

곧바로 거슬러 올라간 연원은 孔孟이요

이름짓기 어려운 功化는 羲黃의 것이었네.

39) 村草는 작은 풀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보잘 것 없는 효심을 비유한다.

40) 瑤冊은 冊文의 미칭인데, 여기에서는 惠嬪을 惠慶宮으로 높인 책문을 가리킨다.

41) 翟裳은 翟衣와 같은 말로 평의 깃으로 장식하거나 그런 무늬가 있는 귀부인이 입는 옷인데, 여기에서는 母后를 비유한다.

42) 罕罍(부시)는 宮門의 밖에 있는 담에 낸 그물을 친 창이다.

43) 陪京은 倍都와 같은 말로 首都 이외에 따로 둔 都邑이다.

44) 宏綱은 주요한 줄거리, 주된 취지이다.

45) ‘甲’은 ‘匣’의 착오인 듯하다.

46) 鱗介는 魚類와 甲殼類로 水生動物을 총칭한다.

위를 향하는 고명함은 계단을 따르는 것과 같고
 사람이 없는 듯 그윽하고 외로움은 장옥을 받든 듯 엄숙하셨네.
 지극한 道가 어찌 일찍이 넓고 은미함⁴⁷⁾을 떠났으랴?
 天機는 가는 곳마다 숨기고 낯에서 드러났다네.
 太平有象孚鱗介 大樂無聲下鳳凰
 直溯淵源于孔孟 難名功化則羲黃
 高明向上猶循級 幽獨無人儼奉璋
 至道何嘗離費隱 天機隨處見潛翔

皇帝는 밝은 덕을 품고 언덕에 오름을 우선으로 하고
 君主는 마음질하여 이름⁴⁸⁾으로써 해자로 돌아감⁴⁹⁾을 경계한다네.
 神禹의 술⁵⁰⁾에서는 감히 도망하는 것이 나았고
 太阿⁵¹⁾의 광망에는 아무도 맞설 사람이 없었네.
 한 편의 <洪範>⁵²⁾은 원래 탕평을 위함이었던만
 두 부류의 甘陵⁵³⁾으로 누가 맞섰던가?
 중천의 밝은 해는 더럽고 가려진 것을 사라지게 하는데
 나란히 가는 수레⁵⁴⁾는 방울을 울리며⁵⁵⁾ 사통팔달의 길⁵⁶⁾을 가네.

47) 費隱은 작용이 넓고 본체가 은미함이다.

48) 財成은 마음질하여 이름인데, 『周易』 『泰卦』의 象辭에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하여 합해지
 는 것이 泰卦이다. 임금은 이로써 천지의 道를 마음질하여 이루고, 천지의 마땅함을 도움으
 로써 백성을 돕는다.(天地交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라는 글이 있다.

49) 復隍은 城이 무너져 흙이 垓字로 돌아감으로 君道가 이미 기울었음을 비유한다.

50) 禹鼎은 夏나라의 禹임금 때 鑄造하여 夏·殷·周 三代에 걸쳐 전승되었던 솥으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다.

51) 太(泰)阿는 춘추시대의 寶劍 이름이다.

52) <洪範>은 『書經』 『周書』의 篇名으로 武王이 殷을 정벌하고 나서 天道를 묻자 箕子가 답했
 다는 말인데, 그 안에 “치우침이 없고 편당이 없으면 임금의 도가 넓고 크며, 편당이 없고 치
 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공평하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라는 내용이 있
 다.

53) 甘陵은 後漢 때의 縣名인데, 여기에서는 후한 桓帝 때 甘陵縣의 周福과 房植의 문객들이 남
 북으로 分黨하여 다툰 일인 甘陵部를 가리킨다.

54) 方軌는 수레가 나란히 감이다.

55) 擬鑾은 느리게 울리는 수레의 방울소리이다.

56) 康莊은 四通八達의 大道인데, 康은 五達을 뜻하고 莊은 六達을 뜻한다.

帝懷明德先登岸 后以財成戒復隍
 不若敢逃神禹鼎 無將莫齒太阿錠
 一篇洪範元平蕩 兩部甘陵孰頡頏
 赫日中天消滓翳 凝鑿方軌轉康莊

송나라 역사의 참된 뜻⁵⁷⁾은 천추의 거울이요
 朱子門派의 바른 학문은 한 조각의 향이었네.
 典謨⁵⁸⁾를 조술하심에는 心法이 있었고
 風雅를 거슬러 올라가심에는 頌聲이 왕양하였네.
 一曜가 빛나는 하늘에는 圖書府가 있고
 三清을 바라보는 땅에는 學士堂이 있었네.
 이틀 동안 숙직하노라면 풍경소리가 빈번하였고
 두 산⁵⁹⁾의 많은 장서에서는 芸香⁶⁰⁾이 부동하였네.

眞詮宋史千秋鏡 正學朱門一瓣香
 祖述典謨心法在 泝洄風雅頌聲洋
 乾文一耀圖書府 地望三清學士堂
 鈴語頻繁雙日直 芸香浮動二山藏

푸른비단 방식에서 顧問하노라면 연촉⁶¹⁾이 둘러 있고
 금원⁶²⁾에서 갱화한⁶³⁾ 詩聯은 柏梁體⁶⁴⁾를 본뒀네.

57) 眞詮은 참된 뜻·도리인데, 여기에서는 정조가 『宋史笈』·『宋史撮要』 등을 편찬한 일을 가리킨다.

58) 典謨는 『書經』의 「堯典」·「舜典」의 「大禹謨」·「皋陶謨」·「益稷」三謨의 합칭인데, 여기에서는 정조가 『書經講義』를 편찬한 일을 가리킨다.

59) 二山은 중국 湖南省에 있는 大西山·小西山으로 그곳의 동굴에서 1천 권의 古書가 발견된 일을 가리키고자 한 말이므로, 장서가 많은 奎章을비유한 것이다.

60) 芸香은 다년초로 늦여름에 지은 향기가 나는 노란 꽃이 피는데, 그 향은 책이 썩먹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61) 蓮燭은 연꽃 모양으로 만든 밀초로 蓮炬라고도 한다.

62) 紫籞는 제왕의 禁苑이다.

63) 廣和載는 廣載와 같은 말로 노래를 이어서 이름이다.

64) 柏梁體는 漢武帝가 지은 시구에 諸臣이 같은 韻으로 1구씩 和答하여 지은 <柏梁詩>에서 유래한 시체로 2인 이상이 각각 한 구절이나 몇 구절을 지어서 한 편을 이룬 시, 또는 매구

경쇠와 거문고 소리 속에 內院에서 작별하고
 배를 타고 뉘시질하며 春塘臺에서 侍從하였네.
 家人과 같은 예우는 천고에 드문 일ियो
 帝所의 청결하고 엄숙함이 八荒⁶⁵⁾까지 미쳤다네.
 漢나라의 시책을 반포하신 때에는 篝燈⁶⁶⁾이 먼 해변에도 이르고
 周나라의 庠序에서 시험하실 적에는 春酒를 은혜로운 잔으로 내리셨네.
 靑綾顧問回蓮燭 紫籘賡聯擬栢梁
 玉磬雅琴分內院 錦帆花釣侍春塘
 家人禮遇稀千古 帝所清嚴關八荒
 窮海篝燈頒漢策 恩盃春酒試周庠

稗官의 諸子에게 모두 붓을 태워 버리게 하시자
 翰苑의 新聲이 비로소 詞場을 擅斷하였네.⁶⁷⁾
 三代之 융성했던 사류의 趨向으로 솔선하여 바로잡고⁶⁸⁾
 百川을 가로막는 문체를 힘껏 회복시키셨네.
 『周易』의 가르침을 갈무리하여 쓰도록 하고
 『詩經』이 볼 수 있게 함을 상기시켜 헤아리게 하셨네.⁶⁹⁾
 詞藻를 지으면 산천이 넓고 크게 응결되고
 붓을 휘두르면 星宿가 광망을 숨겼네.
 稗官諸子皆焚筆 翰苑新聲始擅場
 表正士趨三代盛 力回文體百川障
 易之教也藏其用 詩可觀焉起者商

압운한 시를 가리킨다.

65) 八荒은 八極과 같은 말로 八方의 끝이다.

66) 篝燈은 燈籠과 같은 말로 대오리나 쇠로 살을 만들고 걸을 종이나 형겼으로 씌우고서 안에 등불을 넣는 기구이다.

67) 이 두 구절은 正祖가 文體反正策으로 稗官小品體를 배격함에 따라 문풍이 雅正하게 되었다는 뜻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68) 表正은 스스로 모범이 되어 바로잡음이다.

69) 이 구절은 『論語』 『陽貨』의 “시는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며, 무리와 사귀어 수 있게 하고, 도를 넘지 않고 원망할 수 있게 한다.(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라 한 孔子의 말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다.

摘藻山川凝灑壘 揮毫星宿避光芒

큰 바람에도 騷壇의 깃발이 똑바로 서고
 신비스러운 음률에서는 嶠谷⁷⁰⁾의 피리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네.
 經典과 箋註⁷¹⁾의 精粹를 모음을 史策과 아우르고
 要點과 眇論⁷²⁾을 발휘시킴을 또 장황함과 함께 하셨네.
 마음을 온화하게 함에는 때에 맞추어 三編⁷³⁾을 잇고
 손을 씻음에는 尊者⁷⁴⁾를 열 벌이나 마련하게 하셨네.
 조용한 때에는 야기를 보전하여 정신이 청명하게 하고
 그 밖에는 굳센 剛氣를 몸으로 실행함을 課程으로 하셨네.

大風爲建騷壇幟 神律如聞嶠谷篳
 會粹經箋兼史策 發揮要眇更張皇
 灑心時有三編續 盥手尊爲十襲裝
 靜裡清明全夜氣 幾餘程課體乾剛

옆에서 모시노라면 기쁘게 글을 읽음에 부지런하셨는데
 상에 오른 것은 진술하게도 떡과 엿이 쉬었다네.
 어린 때의 예법은 군왕과 귀공이 옳게 여기는 것을 본받고
 자모의 얼굴을 長壽와 康寧으로 풀어 드림을 첫째로 여기셨네.
 병과 農은 굴리고 도움을 갈게 함에 지나지 않고
 文과 武는 본래 한 번 풀고 당김을 한결같이 함이라네.⁷⁵⁾

70) 嶠谷은 崑崙山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인데, 漢 應劭의 『風俗通』에서는 옛날에 黃帝가 佺 倫을 시켜 이곳의 대나무를 취하여 黃鐘管을 만들게 했다고 하였다.

71) 箋註는 본문의 뜻을 풀이한 註釋이다.

72) 眇論은 精妙한 이론이다.

73) 三編은 孔子가 『周易』을 즐겨 읽어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말인 韋編三 絶에서 유래하여 『주역』을 가리킨다.

74) 尊者는 옛날에 술을 담던 제기인데, 여기에서는 군왕이 태묘의 제사를 지낼 때에 뇌세위(鬯洗 位)에 나아가 盥洗하는 일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다.

75) 弛張은 늦추어 풀어줌과 당겨서 팽팽하게 함으로 사물의 盛衰나 強弱, 또는 일을 처리함의 進退, 寬嚴 등을 비유한다. 『禮記』 『雜記 下』에 “子貢이 蜡祭를 보았는데, 孔子가 ‘賜야, 즐거웠느냐?’라고 하니, ‘한 나라의 백성이 다 미친 듯이 하지만, 저는 그 즐거움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백일 동안 애써서 지내는 蜡祭가 하루의 혜택을 위함임을 네가

中權⁷⁶으로 새로 天策府⁷⁷를 열었고
 章句를 羽林郎⁷⁸이 다 알게 하셨다네.
 怡愉侍側勤佔人畢 眞率登盤雜餌饌
 童禮則然王所貴 慈顏一解受而康
 兵農不啻同輪翼 文武由來一弛張
 新闢中權天策府 盡通章句羽林郎

깊은 가을에 고기궤미⁷⁹처럼 빛나면서 조련하고
 대낮에 鳥槍⁸⁰을 끼고 벼락소리를 울렸다네.
 모두 장악한 三營이 細柳營⁸¹에 모인 때에는
 날아오르는 萬騎가 長楊宮⁸²까지 이르렀다네.
 세움을 유리하다고 여기신⁸³ 先王께서 繁弱弓⁸⁴을 당기셨는데
 유능함이 많은 聖者라 豐相⁸⁵의 짝이 되셨네.
 신 번을 채우면서 매번 參連⁸⁶을 쏘셨는데

알 것이 아니다. 활을 팽팽하게 하고 풀어 주지 않으면 文王과 武王도 할 수 없으며, 풀기만 하고 팽팽하게 당기지 않으면 문왕과 무왕도 하지 못한다. 한 번 당기고 한 번 풀어 주는 것이 문왕과 무왕의 道이다.'하였다.(子貢觀於蜡 孔子曰 賜也 樂乎 對曰 一國之人皆若狂 賜未知其樂也 子曰 百日之蜡 一日之澤 非爾所知也 張而不弛 文武弗能也 弛而不張 文武弗爲也 一張一弛 文武之道也)"라는 글이 있다.

- 76) 中權은 하는 일이 權道에 합함 또는 시의나 정황에 알맞음이다.
 77) 天策府는 왕공의 위에 두었던 天策上將의 관서로 唐 太宗이 秦王으로 있을 때 받은 관부인데, 여기에서는 정조가 洪國榮으로 하여금 都承旨와 宿衛大將을 겸직하게 하여 三公六卿에게 전횡을 부린 일을 비유하는 듯하다.
 78) 羽林은 제왕을 수비하던 군사이다.
 79) 魚貫은 물고기를 켜 두름으로 차례대로 이어져 있음을 비유한다.
 80) 鳥槍은 火繩銃이다.
 81) 細柳營은 漢 文帝 때의 將軍 周亞夫가 咸陽의 西南의 細柳에 주둔하면서 軍紀를 엄하게 다스렸던 軍營으로 軍營, 또는 軍紀가 엄정한 軍營을 대유한다.
 82) 長楊은 秦漢代의 궁궐 이름이다.
 83) 利建은 딸을 봉하여 諸侯를 세움이 유리함으로, 『周易』의 屯卦의 卦辭 "갈 곳이 있어도 가지 말 것이니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勿用有攸往, 利建侯.)"에서 유래한다.
 84) 繁弱은 옛날의 良弓 이름이다.
 85) 豐相은 지금의 山東省 曲阜市 闕里 서쪽에 있던 땅 이름으로 孔子가 활쏘기를 익힌 곳이며, 學宮의 활터를 대유한다.
 86) 參連은 五射의 하나로 먼저 화살 하나를 쏘고 이어서 연달아 세 대를 잇달아 쏘는 것인데, 오사는 활을 쏘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白矢·參連·剡注·襄尺·井儀의 합칭이다.

중앙을 꿰뚫으면 일제히 천세를 외쳤다네.

深秋組練明魚貫 白日雷霆夾鳥槍

捻攬三營臨細柳 飛騰萬騎蹴長楊

先王利建彎繁弱 聖者多能耦豐相

每發參連盈五十 齊呼千歲貫中央

아, 塗山⁸⁷⁾의 芾鳥⁸⁸⁾이 이른 곳이 어디인가?

魯나라의 『陽秋』⁸⁹⁾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한 칸의 모옥에서도 어떤 이는 楚나라를 제사하였는데⁹⁰⁾

몇 그루의 冬靑⁹¹⁾으로 姓氏인 唐을 남겼다네.⁹²⁾

黃驪의 우뚝한 돌에 지은 시는 예스럽고

白馬江의 높은 사당에 올린 술은 향기로웠네.

漢水에는 나루가 없어도 옥백을 朝貢으로 바치건만

冽泉門⁹³⁾에는 예로부터 苞稂⁹⁴⁾이 침범하였다네.

塗山芾鳥嗟何地 魯國陽秋詎可忘

茅屋一間人祭楚 冬靑數樹姓留唐

黃驪石屹題詩古 白馬祠高薦酒芳

漢水無津朝玉帛 冽泉終古浸苞稂

뚜렷한 단청이 있는 곳으로 天將⁹⁵⁾이 오니

구슬픈 簫鼓소리는 國傷을 슬퍼하네.

87) 塗山은禹임금이 장가든 곳이자 천하의 제후를 모았다는 나라, 또는 산 이름이다.

88) 芾鳥은 제후의 옷과 신발인데, 芾은 韞의 通字로 제후의 옷의 슬감을 뜻한다.

89) 『陽秋』는 『春秋』를 東晉 簡文帝의 鄭后 阿春의 이름을 기휘하여 이른 말이다.

90) 이 구절은 韓愈의 <題楚昭王廟>의 절구 “一間茅屋祭昭王”을 점화한 것인데, 소왕은 춘추 시대 楚王으로 뒤틀로 망명한 伍子胥의 원한을 샀던 平王의 아들이다.

91) 冬(凍)靑은 감탕나무과에 딸린 常綠喬木으로 고유어로는 사철나무라고 한다.

92) 이 구절은 南宋이 패망한 뒤 元僧 楊璉真伽가 남송의 帝陵들을 발굴하자 唐珙이 그 유해를 석함에 넣어 蘭亭山에 매장하고 그 위에 冬靑樹를 심은 일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다.

93) 冽泉門은 조선조가 明의 마지막 임금인 神宗을 제사하기 위하여 세운 祭壇인 大報壇 남쪽에 있었던 문 이름이다.

94) 苞稂은 밭에 무더기로 난 더부룩한 잡초이다.

95) 天將은 하늘나라의 장수, 또는 神將이다.

긴 세월 동안 바람소리는 사물의 법칙을 돕는데
 所南⁹⁶⁾의 『心史』⁹⁷⁾는 尊王攘夷의 뜻을 부친 것이라네.
 심상한 보배로 장식한 병풍이야 즐길 게 없음을 알지만
 豊大한 아름다움을 칭송함에 어찌 겨를이 없으랴?
 辛日에 太廟에서 풍년을 기원하시면 御駕를 계엄하고
 亥日에 黃門⁹⁸⁾에서는 재앙을 물리치느라고⁹⁹⁾ 주머니를 나누어주었네.¹⁰⁰⁾
 丹青落落來天將 簫鼓悽悽吊國殤
 永世風聲扶物則 所南心史寓尊攘
 尋常寶辰知無樂 豊大徽稱豈未遑
 太社祈豊辛戒駕 黃門祓蜡亥頒囊

元春이면 큰 은택이 천리에 미치고
 首歲에는 온화한 운음 열 줄을 내리셨네.
 牧伯은 무성한 팔배나무 그늘¹⁰¹⁾에서 詢問하고
 巖廊¹⁰²⁾에서는 휘황한 玉燭¹⁰³⁾으로 안정시켰네.
 백성에게는 농사가 근본임을 깊이 아시니
 손자들은 穡事¹⁰⁴⁾를 걱정하지 않게 됨을 다투어 칭송하였다네.
 길에서 稀年¹⁰⁵⁾을 공경하도록 모두 비단을 하사하고

96) 所南은 宋末元初의 지사 鄭思肖의 자인데, 南宋의 태학생으로 있다가 元軍이 남하하자 뭇
 下로 가서 은거하며 북쪽을 향하여 앉고 눕지 않았으며, 나라가 망하자 이름을 某에서 思肖,
 자를 所南으로 바꾸고, 뿌리가 없는 난초를 그려 슬픔을 표하였다.

97) 『心史』는 남송의 시인 鄭思肖의 시집으로 4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라가 元에 망한 데 대
 한 비분강개의 정을 읊은 시가 많이 실려 있다.

98) 黃門은 궁궐의 문이다.

99) 祓蜡(불사)는 災厄을 물리치고자 지내는 제사이다.

100) 頒囊은 임금의 신하에게 주머니를 頒賜함인데, 『日省錄』 권5 正祖 5년 신축조의 본조의
 宰臣·近侍들이 정월 亥日과 子日에 주머니를 나누어 주어 함께 풍년을 들기를 기원하는 뜻
 을 보여준 것을 사례한 데 대해 擬作하라.(擬本朝宰執近侍等, 謝於月正亥子日頒囊, 同視祈年
 之意.)"라는 泮宮柑製의 箋題로 보아, 조선조의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관습으로 보인다.

101) 棠陰은 팔배나무의 그늘로 周初의 재상 召公이 그곳에서 政事를 잘 보았던 데서 연유하여
 惠政이나 관리의 인자한 행실을 비유한다.

102) 巖廊은 높은 廊廡로 朝廷을 비유한다.

103) 玉燭은 사철의 기후가 고르고 해와 달이 흰히 비치는 것으로 太平盛世를 비유한다.

104) 穡事는 농사이다.

마을에서 嫠婦¹⁰⁶)를 가엾게 여기도록 특별히 창고를 열게 하셨네.

元春沛澤方千里 首歲溫綸下十行
 藹藹棠陰詢牧伯 輝輝玉燭序巖廊
 深知百姓農爲本 爭誦曾孫稼不瘠
 路敬稀年皆賜帛 村憐嫠婦特開倉

汜書¹⁰⁷)와 爾畫¹⁰⁸)를 모아서 표지까지 이루었고

측우기와 풍속계는 열을 지어 옆에 놓여 있었네.

灣府¹⁰⁹)의 물소리는 御史의 도끼처럼 달리고

瀛州¹¹⁰)의 채소빛은 검은 돛대로 떠올랐네.

밭을 드는¹¹¹) 것을 보기를 좋아하여 남쪽밭에 오르고

마른 해골을 불쌍히 여겨 가려서 북망¹¹²)에 편입시키셨네.

法律과 條例로 秋官¹¹³)의 개오동나무 회초리를 가볍게 하고

감옥¹¹⁴)에서 봄날에 쇠사슬¹¹⁵)을 씻어 주셨네.

汜書爾畫哀成裘 雨器風竿列在傍
 灣府水聲馳繡斧 瀛洲菜色泛烏樞
 喜看舉趾緣南畝 哀掩枯骸編北邙
 律例秋官輕榷楚 犴牢春草洗銀鑪

105) 稀年은 古稀·稀壽와 같은 말로 盛唐의 시인 杜甫의 <曲江>에서 “술빛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거니와, 사람이 철심을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다네.(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 라는 글에서 유래하여 70세를 가리킨다.

106) 嫠婦(이부)는 과부이다.

107) 汜書는 홍수를 예방함에 대한 책을 가리킨 듯하다.

108) 爾畫는 『詩經』 『爾風』 <七月>에서 유래하여 농사에 대한 그림이다.

109) 만부는 물줄기가 굽어진 곳

110) 瀛州는 『史記』 『秦始皇紀』 · 『武帝紀』에 나오는 동해의 동쪽에 있는 仙人이 산다는 산으로 蓬萊·方丈과 함께 三神山의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금강산의 별칭으로 볼 수 있다.

111) 舉趾는 밭을 들인데, 『詩經』 『國風』 <七月>에 “정월에는 보습을 잡고, 2월에는 밭을 드네. 나의 머느리와 아이를 데리고, 저 남쪽밭에서 들밭을 먹네.(三之日于耜, 四之日舉趾. 同我婦子, 饁彼南畝.)”라는 대목이 있다.

112) 北邙은 옛날 중국 洛陽城 북동쪽에 있던 산 이름으로 묘역으로 쓰이던 곳이다.

113) 秋官은 刑法을 관장하는 관이나 관원이다.

114) 犴牢(안뢰)는 犴圈와 같은 말로 감옥이다.

115) 銀鑪은 죄인을 묶는 쇠사슬이다.

보고한 諧曹에 詳答한 문서에는 蠅頭字¹¹⁶가 가늘고
 담당한 廷尉에게 관결하실 때에는 雁足燈¹¹⁷이 깜박거렸네.
 눈이 쌓인 산길에서 사슴은 빼고 사냥하고
 조수가 통하는 바닷가에서 누리¹¹⁸를 태워서 빠뜨리셨네.
 湯임금의 그물¹¹⁹은 참으로 짐승에게 느슨함을 비로소 알겠거니
 齊나라의 鍾 때문에 잠깐 양으로 바꾼¹²⁰ 일을 문득 비웃었다네.
 백성들이 득의하매 湖山도 서로 어우러지고
 歲事가 풍년이 드니 함께 가고소리를 들었네.

蠅頭字細詳曹讞	鴈足燈殘判尉當
雪積山蹊除獵鹿	潮通海溼化沈蝗
始知湯網眞寬獸	却哂齊鍾蕪易羊
映帶湖山民得得	相聞歌鼓歲穰穰

어부는 滄溟의 세금을 알지 못하고
 駟騎¹²¹는 橘柚의 광주리에 비로소 멈추었네.
 늘 연기와 그을음이 전각을 에워쌌거늘
 어찌 일찍이 진주와 비취가 모전침상을 돌렸으랴
 대궐 안에서는 검소한 服制로 거친 비단이 자리를 잡고
 春閨에서는 교묘하던 치장을 높이 묶은 머리로 바꾸었네.
 薊州와 潘陽에서 온 기이한 보배를 보지 못하고
 다만 泉漳에서 들어온 옛날 서적에 대하여 들었을 뿐이네.

116) 蠅頭字는 파리의 머리만큼 작은 글씨이다.

117) 雁足燈은 漢代에 궁중에서 쓰던 받침대에 기러기의 발 모양을 새긴 燈이다.

118) 蝗虫은 곡식에 해를 끼치는 벌레로 고유어로는 누리라고 하며, 논밭을 팔아먹고 사는 불초한 자식이나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한다.

119) 湯網寬은 開湯網과 같은 말로 湯王이 어떤 사람이 그물을 사방에 치고 새를 잡는 것을 보고 삼면의 그물을 걸고 한 쪽만 치고서 새를 잡도록 한 데에서 유래하여 군왕의 刑政이 관대함을 비유한다.

120) 齊鍾蕪易羊은 『孟子』 梁惠王 上에 나오는 齊宣王이 鍾을 메우는 제사에 쓸 피를 구하려고 소를 끌고가는 자에게 소를 놓아 주라고 하자 제사를 그만둘까 묻자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라고 하였다는 일화를 가리킨다.

121) 駟騎는 驛馬이다.

漁人不識滄溟稅 駟騎初停橘柚筐
 長遣烟煤籠殿閣 何曾珠翠繞氈床
 麤繒大內留菲制 高髻春閨變巧粧
 未見異珍來薊瀋 祇聞遺籍自泉漳

현인을 등용해 논의하여 循資格法¹²²⁾을 폐지하였거늘
 법도를 방치하고 어찌 枉法受贓¹²³⁾에 너그러웠으랴?
 燕寢¹²⁴⁾에서는 조용히 아름다운 선비를 가까이 하고
 後庭을 청소시킴¹²⁵⁾ 뿐 貂璫¹²⁶⁾을 멀리 하셨네.
 서로 바로잡아 正義에 이르면 실행함을 함께 하고
 무리를 지어 술을 드실 때에는 河水와 같아 쉬 헤아릴 수 없었네.
 月川에서 또 태극을 살피시면서
 淸濁을 모두 滄浪에 맡기셨다네.

立賢議罷循資格 置辟寧饒枉法贓
 燕寢從容親玉彥 後庭涓掃遠貂璫
 胥匡以正僭之道 羣飲于河未易量
 且向月川看太極 都將淸濁付滄浪

보잘 것 없는 재주로 어찌 하늘의 해를 그리려 하는가?
 大誥¹²⁷⁾를 追想하매 다만 눈과 서리를 두려워할 뿐이네.
 靈臺에서 거울처럼 밝게 살피심을 이미 믿으니
 참소하는 혀를 箠箠처럼 교묘하게 수고롭히지 말라.
 天符를 잡으실¹²⁸⁾ 때에는 참으로 洪福을 맞이하였거늘

122) 循資格法은 고려·조선시대에 관리들을 기간을 정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시키던 인사제도이다.

123) 枉法受贓은 관리가 법을 어기고 賂物을 받는 죄이다.

124) 燕寢은 제왕이 평소에 거처하는 궁궐이다

125) 涓掃는 淸掃이다.

126) 貂璫은 담비갓옷과 金銀으로 만든 璫으로 宦官을 비유한다.

127) 大誥는 천하의 사람들에게 널리 크게 고함, 또는 그런 글이다.

128) 握符는 天命의 符節을 잡음으로 제왕의 즉위를 비유한다.

궤안에 기댄 채 末命¹²⁹⁾을 내리심을 어찌 우러르게 하는가?

露梁津 물 가의 舟橋¹³⁰⁾가 엇그제의 일인 듯한데

華城 북쪽의 성궐에는 처량한 가운데 침입하네.

謏才詎擬摸天日 大詰迫惟凜雪霜

已信靈臺明似鑑 莫勞讒舌巧如簧

握符政爾洪休迓 憑几胡然末命揚

鷺渚舟橋疑宿昔 華陽城闕入悽涼

일찍이 齋殿의 眞容에 定省하고¹³¹⁾

또 寢岡의 象設¹³²⁾을 瞻依하셨네.¹³³⁾¹³⁴⁾

농으신 활과 남기신 칼을 祖道¹³⁵⁾에서 붙잡으시더니

三經과 四書는 便房¹³⁶⁾에 모셔 두시네.

이주 감감한 곳에서 외로워하심¹³⁷⁾을 어찌 차마 쳐다보라?

크게 상처입어 근심하심¹³⁸⁾을 만남을 견딜 수 없네.

장대와 같은 衣尺으로 의젓하게 哭臨하시는데

永命을 하늘에 비노니 끝없이 누리소서.

眞容定省曾齋殿 象設瞻依又寢岡

129) 末命은 제왕이 崩御할 때에 내리는 遺命이다.

130) 舟橋는 浮橋·舟梁과 같은 말로 배를 한 줄로 나란히 묶어서 늘어놓아 橋梁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데, 『詩經』 『大雅』 <大明>의 “큰 나라에 아들이 있고, 하늘이 건준 누이가 있었네. 문왕이 그 상서로운 이를 짝으로 정하고, 몸소 위수에서 맞아하셨네. 배를 늘어놓아 다리를 삼으니, 그 빛이 밝지 아니한가?(大邦有子, 俁天之妹. 文定厥祥, 親臨于渭. 造舟爲橋, 不顯其光.)”라는 글에서 유래한다.

131) 定省은 昏定晨省의 준말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피는 것이다.

132) 象設은 능묘에 설치한 護衛人獸石象이다.

133) 瞻依는 우러러보고 의지함으로 윗사람에 대한 경의를 포함을 비유한다.

134) 이 두 구절은 시인이 체술한 <健陵誌>(『석재고』 권17)의 “擣御眞于園之齋殿, 以寓晨昏之義, 大城厥邑, 以控衛象, 設歲一謁, 輒涕泣不能起”로 보아 1789년에 莊獻世子陵을 顯隆園으로 이장할 때의 의을 회고한 것이다.

135) 祖道는 길을 떠나는 이를 위하여 길의 신에게 제사하고 나서 잔치를 베풀어 송별하는 일이다.

136) 便房은 正室 이외의 別室이다.

137) 癡癡(경경)은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외로운 모양이다.

138) 恤恤은 근심하는 모양이다.

弓墜劔遺攀祖道 經三書四奉便房
 箕箒何忍瞻深墨 恤恤靡堪遭巨創
 衣尺若干臨有儼 祈天永命履无疆

발을 늘어뜨리고 典禮하며 못사람의 요청을 따르고
 상여줄을 놓고 슬퍼하며 大喪을 다스리시네.
 어찌 殿宮만이 지척을 떨어졌으랴?
 응당 오르내릴 때에는 또한 방황하시리.
 末品¹³⁹⁾으로 특별히 은택을 입음을 가없어할 만한데
 마침내 淸衙¹⁴⁰⁾을 허락하셔서 일찍이 벼슬을 거쳤다네.
 경건하게 새로 서가에 꽂은 하사하신 서책을 받들고
 울면서 지난날에 상자를 채웠던 임금님의 서찰을 읽네.

垂簾典禮循羣請 宣紼悽傷庀大喪
 獨奈殿宮違咫尺 知應陟降也徊徨
 可憐末品偏恩澤 遂許淸衙早歷敷
 虔奉賜書新插架 泣看宸札舊盈箱

푸른 향아리에 든 인삼과 白朮¹⁴¹⁾로 형의 질환을 물어 보셨나니
 붉은 수건으로 싼 銀과 산초는 어머니의 祥祭를 기억하게 하네.
 꿈결 같은 삼년 뒤에 弱水¹⁴²⁾는 어스레할 텐데
 아! 만사가 문득 滄桑¹⁴³⁾이 되어 버렸도다.
 仙馭¹⁴⁴⁾를 배종하여 수염을 부여잡을¹⁴⁵⁾ 희망이 끊어졌으니

139) 末品은 낮은 품계인데, 석재는 22세 때 정9품의 검열로 초계문신이 된 데 이어 곧 규장각 대교로 옮겨졌다.

140) 淸衙는 淸職·淸宦이다.

141) 白朮은 삼주의 덩이줄기를 말린 약재로 따뜻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여 소화를 돕거나 이뇨작용을 한다.

142) 弱水는 『書經』·『山海經』 등에 나오는 仙境을 둘러싼 강으로 새털도 가라앉을 만큼 부력이 약하다고 한다.

143) 滄桑은 桑田滄海의 준말로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로 변함이며, 세상의 변화가 극심함을 비유한다.

144) 仙馭는 신선의 수레로 제왕의 죽음을 비유한다.

黻牆에서 시위할 蓐蟻¹⁴⁶를 실행함은 무엇에 말미암으랴?
 구차스럽게 여생을 마치고 塵刹¹⁴⁷의 업보를 갚은 뒤에
 날아서 白雲鄉¹⁴⁸으로 돌아가서 모시리.

翠巒蓼朮詢兄疾	紅帕銀椒記母祥
魂夢三年迷弱水	嗚呼萬事忽滄桑
攀髯望絕陪仙馭	蓐蟻何因衛黻牆
苟遂餘生塵刹報	翩然歸侍白雲鄉

3. 형식과 내용의 특성

윤행임의 <건릉만사>는 詩體가 7언배율이다. 배율은 句式을 10구 이상으로 하는 율시이므로 율시와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율시보다 길게 짓는 게 보통이므로, 따로 설명하는 게 좋다. 율시는 頷聯·頸聯을 對仗으로 함이 원칙인 가운데 나머지 연은 대장으로 해도 무방한 시체인 데 대하여, 배율은 結聯을 빼고는 모든 연을 對聯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이 밖에는 율시와 속성이 같으므로 그 모든 규율은 율시 일반을 표준으로 삼아 설명할 수 있다.

<건릉만사>의 첫머리 8구의 平仄을 검증해 보면, [측평평측측평평, 평측평평측평평, 평측측평평측측, 평평측측측평평, 평평측측평평측, 측측평평측측평, 평측평평평측측, 평평평측측평평.]으로 되어 있어 평기식 율시와 같으며, 그 이하도 8구 단위로 전부 평기식 율시의 염법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7언배율도 7언고시와 마찬가지로 수구에 운을 달지 않음이 정

145) 攀髯은 攀龍과 같은 말로, 黃帝가 승천할 때에, 黃帝가 탄 용을 따르려고 신하들이 그 수염을 잡았으나 수염이 뽀빠져 버려 이루지 못하고 황제는 승천하였다는 『史記』 『封禪書』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제왕을 뒤따르거나 제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쓰인다.

146) 蓐(蓐)蟻는 殷의 土喪禮에서 棺을 덮은 붉은 천으로 된 흙이불[楮蓐·蓐]의 네 모서리에 그려 놓은 개미무늬[蟻結]로 왕을 따라 죽음을 비유한다.

147) 塵刹은 티끌처럼 수없이 많은 세계이며,刹은 國土를 뜻하는 梵語의 가차이다.

148) 白雲鄉은 『莊子』 『天地』의 “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논다.(乘彼白雲, 游于帝鄉)”라는 글에서 유래한 말로 仙鄉을 가리킨다.

레인데, 이 작품은 변례를 따라 입운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살피면 變格인 平起式 7언율시의 평측규칙을 따르되, 전체의 首句인 제1구만 입운하고 이하의 율시의 수구 자리, 즉 9의 倍數가 되는 구절은 제16수의 수구인 ‘丹青落落來天將’을 제외하면 모두 입운하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이 배율의 200구절은 첫수와 제16수만 수구에 입운한 평기식 7언율시 25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배율도 율시와 마찬가지로 수련·미련에는 대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율시의 중간부분, 즉 함·경련에 해당하는 연의 숫자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반드시 대장을 사용함이 원칙이다. 배율은 오언이 대부분이라 首句에 압운하지 않는 탓에 수련을 대장으로 한 것을 정격으로 볼 수 있지만, 7언배율은 반대로 대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격이라 할 수 있다. <건릉만사>는 정례대로 수련인 ‘下從無路羨秦良, 敷衽嗽詞涕滂滂’과 마지막 연인 ‘苟遂餘生塵刹報, 翩然歸侍白雲鄉’을 제외한 모든 연을 대련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련 98연이 모두 율시에 요구되는 工對·嚴對로 되어 있지 않고 寬對·平對를 쓴 연이 흔히 있어, ‘地卜萬年曾有意, 亭成未老若爲忙’, ‘精微義要垂來世, 恭黜言猶示大防’ ‘閔宮詩奏情文盡, 洛邑昌成志事彰’, ‘君師合一天將聖, 品物登三世亦昌’, ‘高明向上猶循級, 幽獨無人儼奉璋’, ‘瀦心時有三編續, 盥手尊爲十襲裝’, ‘律例秋官輕榷楚, 狂牢春草洗銀鑪’, ‘映帶湖山民得得, 相聞歌鼓歲穰穰’, ‘謏才詎擬摸天日, 大詰追惟凜雪霜’, ‘垂簾典禮循羣請, 宣綉悽傷庀大喪’, ‘魂夢三年迷弱水, 嗚呼萬事忽滄桑’, ‘髯望絕陪仙馭, 蓐蟻何因衛黻牆’ 등 12연은 그런 예이다. 또 上半이나 下半만 대장을 이루어 失對에 가깝게 된 경우도 ‘廟稱君子大居正, 陵取天行以自強’, ‘帝懷明德先登岸, 后以財成戒復隍’, ‘童禮則然王所貴, 慈顏一解受而康’, ‘衣尺若干臨有儼, 祈天永命履无疆’, ‘獨奈殿宮違咫尺, 知應陟降也徊徨’ 등 5개처나 보인다. 98개에 이르는 대련을 모두 엄대로 하지 않고 느슨한 대장을 비교적 많이 사용한 것은 整嚴이 지나치면 板弱에 빠짐을 경계하는 의도와 연관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위낙 聯數가 많은 점이 일반율시와 달리 엄대만을 고수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작품은 下平聲陽韻의 7언배율이다. 배율도 율시와 압운규칙을 같이

해야 하므로 出韻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제42구 ‘力回文體百川障’의 ‘障’은 隣韻인 去聲漾韻에 속하는 글자여서 한 차례 출운을 범한 결과 되었다. 宋代 이전의 율시에도 출운한 예가 없지는 않으므로, 이 작품도 그것처럼 어쩌다가 출운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陽’은 글자수가 많은 운, 즉 寬韻에 속하는 韻目임에도 불구하고, 101개 韻脚 가운데 출운이 1회 생겼다고 보면, 고풍적 의식이 다소 가미된 배율이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하다. 또 근체시는 重韻, 즉 같은 韻字를 거듭 쓰는 일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77연 ‘漁人不識滄溟稅, 駟騎初停橘柚筐’과 제86연 ‘已信靈臺明似鑑, 莫勞讒舌巧如簧’은 같은 글자인 ‘簧’을 사용함으로써 重韻을 범하였다. 의도적으로 범한 것인지, 점검하지 않아 생긴 착오인지 알기 어려우나, 워낙 장편이라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의미구조는 형식적으로 율시 25수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세분하면 25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살필 경우, 애도·효성·애민을 소주제로 하거나 유사한 치적·생활태도를 읊은 단락이 둘 이상일 뿐 아니라, 앞뒤의 두 수가 내용상의 연속성을 지닌 경우도 더러 있어, 현실적인 구분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략적 결구로 파악하여 起·承·轉·합이라는 한시 일반의 章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면 起段은 제1~8구(율시 1수), 承段은 제9~168구(율시 20수), 轉段은 제169구~192구(율시 3수), 合段은 제193~200구(율시 1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起段(제1~8구)은 大行王의 갑작스러운 崩御로 말미암은 충격과 망극한 애도를 포함으로써 發題의 뜻을 드러낸 단락이다. 侍從臣이라 殉死해야 마땅하지만, 그럴 수도 없어 눈물만 흘리면서 생사의 충운을 새삼스럽게 절감하는 뜻을 전반부에서 드러내었다. ‘典故를 빌려 충격으로 망연해진 마음을 압축적으로 토로한 ‘下從無路羨秦良’이라는 發語가 매우 돌출하여 율시의 破題에 요구되는 章法¹⁴⁹⁾에 부합될 뿐 아니라, 장편은 먼저 起句를 얻어야 한다¹⁵⁰⁾는 시법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구절이다. 후반부에서는 생년

149) 楊載, 『詩法家範』. “破題或對景興起, 或比起, 或引事, 起或就題起, 要突兀高遠, 如狂風捲浪勢欲滔天.”

은 程顥처럼 壬申年이고 물년은 朱熹와 같이 庚申年임을 서술하고, 신민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을 잃게 한 하늘을 원망하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程翁嶽降年生世, 晦父山頽歲陟方’이라는 영탄적 서술에는 참으로 斯文을 중시 하였던 大行王의 행적이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율시의 결론에 해당하는 ‘無賴臣民天不吊, 如今仁壽理何茫’은 정제된 말로 무한한 연외의 뜻을 갈무리한 숨씨를 엮보게 한다. 이 기단 1수는 애도의 뜻과 망자의 행적을 포괄적으로 總敍하는 일을 아울러 잘 수행했다는 점에서 장편의 序段에는 篇意가 다 들어 있어야 한다¹⁵⁰⁾는 작법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承段(제9~168구)은 대행왕의 치적·성품·위인·언행 등에 대한 서술 및 찬양을 요지로 한 단락으로 작품 전체의 중심단락이라 할 수 있다. 율시 20수로 이루어진 이 단락은 다시 제1단(제9~24구)·제2단(제25~112구)·제3단(113~176구)의 3단락으로 세분하여 살필 수 있다.

제1단(제9~24구)은 대행왕의 치세·생평 전반에 대한 서술과 찬양·평가를 주지로 한 단락으로, 승단 전체의 緒端의 기능을 지닌 대목이다. 율시 2수로 이루어진 이 단락의 첫수는 전반부에서 급서에 대한 비탄의 뜻을 다시 표한 데 이어, 사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한 데 대한 비애를 드러내었고, 후반부에서는 華城 및 顯隆園의 조성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고 나서, 그 학문과 효성에 대하여 찬양하였다. 율시의 결론에 해당하는 ‘廟稱君子大居正, 陵取天行以自強’은 이 수의 활어가 포함된 연이라 할 만하다. 둘째 수는 치세에 대한 概評을 주지로 한 단락으로 “삼통에서 천인과 성명을 잇고, 한 임금으로 예악과 시서를 제정하셨네. 허공의 구름을 거두어서 조화로 귀결 시키고, 이 夏나라에 퍼서 윤상을 세우셨네.(天人性命承三統, 禮樂詩書制一王. 斂却虛雲歸造化, 陳于時夏樹倫常.)”라 한 율시의 기·함련에 해당하는 대목에서는 대행왕의 치세에 대한 概評을 매우 정제된 어구로 제시한 숨씨를 볼 수 있다.

150) 傅若金, 『詩法正論』, 『壬後集』 上之下. “長篇則當先得起句, 絕句則當先得後二句, 律詩則當先得中四句.”

151) 范梈, <五言長古篇法>, 『木天禁語』(吳景旭 편, 『歷代詩話』 권67 소수). “首段是序子, 序了, 一篇之意皆含在中.”

제2단(제25~112구)은 대행왕의 구체적 치적·위인·성품·언행 등에 대한 서술과 찬양을 요지로 한 단락으로, 승단 전체의 本段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전체가 88구로 읊시 11수에 해당하는 이 단락의 각수의 소주제는 차례대로 언행, 효성, 君道, 생활자세, 탕평책, 학문·문장의 정책, 侍臣의 예우, 문체반정, 학문과 수양, 언동과 예법, 崇武의 자세로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를 위하여 제4수는 ‘袞鉞昭森登日記, 風雲翳鬱引春坊’, 제5수는 ‘寸草愛深三問寢, 蟠花喜動七巡觴’, 제6수는 ‘君師合一天將聖, 品物登三世亦昌’, 제7수는 ‘太平有象孚鱗介, 大樂無聲下鳳凰’, 제8수는 ‘不若敢逃神禹鼎, 無將莫齒太阿銑’, 제9수는 ‘乾文一耀圖書府, 地望三清學士堂’, 제10수는 ‘玉磬雅琴分內院, 錦帆花釣侍春塘’, 제11수는 ‘稗官諸子皆焚筆, 翰苑新聲始擅場’, 제12수는 ‘大風爲建騷壇幟, 神律如聞嶠谷篁’, 제13수는 ‘童禮則然王所貴, 慈顏一解受而康’, 제14수는 ‘每發參連盈五十, 齊呼千歲貫中央’이라는 잘 가다듬어진 요어를 내포한 연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11수 사이에 효성이나 평소의 언동·생활자세의 경우 다소 중복이 보이는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 구도와 세부적 안배에 대한 배려에 따라 각수가 대체로 독립성을 지니도록 형상화된 장점을 지닌 점을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그러한 세부적 묘사·서술·찬양·평가에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행왕을 至近에서 보필한 侍臣만이 지닐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체험과 안목이 반영되어 있음이 돋보이는 점이다. <健陵誌>의 찬자였던 경험도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군왕께 바치는 만사에 수반되게 마련인 과장이나 찬미 일변도로 말미암은 상투성을 벗어나 인간미가 감돌게 함으로써 감동을 요소를 지니게 한 점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미덕이다.

제3단(제113~168구)은 다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중심으로 하여 대행왕의 생활태도·성품·도량 등을 서술하고 찬미한 내용으로 된 단락으로, 읊시 제15수~21수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7수의 읊시로 볼 수 있는 이 단락의 각수의 주지는 차례대로 애도 및 생시에 대한 회억, 지극한 애통, 백성에 대한 애정, 농민·궁민에 대한 공홀심, 농민에 대한 공홀심, 평소의 생활철학, 어진 성품과 넓은 도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수의 요어나 활어가 포함된 연은 제15수는 ‘茅屋一間人祭楚，冬靑數樹姓留唐’， 제16수는 ‘太社祈豐辛戒駕，黃門祓蜡亥頒囊’， 제17수는 ‘路敬稀年皆賜帛，村憐嫠婦特開倉’， 제18수는 ‘喜看舉趾緣南畝，哀掩枯骸編北邙’， 제19수는 ‘映帶湖山民得得，相聞歌鼓歲穰穰’， 제20수는 ‘蠶繒大內留菲制，高髻春閨變巧粧’， 제21수는 ‘燕寢從容親玉彥，後庭涓掃遠貂璫’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들에서는 애도대상인 대행왕을 가까운 데서 관찰하고 자주 교섭함으로써 얻은 체험적 시선과 혜안이 함축적인 표현으로 제시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어, 元의 傅若金이 말한¹⁵²⁾ 바와 같이 장편의 경우 중간의 적소에 整齊語, 즉 活語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관점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1수에 이어 제15수에서 다시 전편이 애도의 뜻을 주제로 한 것이 제3단락이 승단 전체의 전환적 역할을 한다는 징표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제16수마저 유사한 방향으로 형상화된 점은 지나친 중복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더욱이 제3단 안에 백성에 대한 애정이나 공훈이 3수에 걸쳐서 지루하게 서술·묘사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장시인 이 작품은 南宋의 揭傒斯가 포서가 알맞음을 얻어야 한다(要鋪叙得好)고 한 데 이어, “또 먼저 대의를 세워서 서술을 펼치는 방법이 정해진 뒤에 짓기 시작하면 문맥이 관통하고 의경이 끊어지지 않고 정연해져서 볼 만하게 된다.”¹⁵³⁾라 한 바와 같이, 근체시이면서도 7언고풍처럼 鋪敘를 핵심적 표현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승단 가운데 제2·3단락(제25~168구)의 포서가 적절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의 제2단과 함께 제3단에 이러한 의미적 중복이 있는 점은 이 작품의 작지 않은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 시의 의미적 핵심이라 할 승단의 내용과 제시방식이 뛰어난 군왕이었던 망자의 생애·위인·치적의 요점을 초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아울러 망자에 대한 시인의 정회를 적절히 드러냄으로써, 뛰어난 애도시의 요건을 지니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2) 傅若金, 앞의 글. “長篇古體則參差中時出整齊語, 尤見筆力.”

153) 揭傒斯, <古詩要法>, 오경옥 편, 앞의 책, 권67. “且先立大意, 鋪叙既定然後下筆, 則文脉貫通, 意無斷續整然, 可觀.”

轉段(제169~192구)은 시인의 필력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상주이자 後嗣인 세자에 대한 염려 및 기대를 주지로 한 단락으로 시상의 수결에 앞선 전환점을 자신과 세자에게서 찾고자 한 부분이다. 읍시 3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 중 첫 수에서는 謏才로 대행왕의 전모를 그리고자 한 어리석음을 토로하는 말로 시상을 연 뒤, 붕어 후에도 참언을 삼가지 않는 세력에게 경고를 발함으로써 왕의 생시의 곤경을 상기시키는 뜻으로 이를 이었다. 후반부에서는 성군을 잃게 한 하늘을 다시 원망하는 말로 시상을 전환시킨 뒤, 舟橋로 장헌세자의 상어를 읊긴 일과 화성 행궁의 광경을 推想하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驚渚舟橋疑宿昔’과 華陽城闕入淒涼’은 정조의 생애를 상징할 만한 사업이라 할 현릉원과 행궁에 대한 회포를 압축적으로 담아 놓은 활구라 할 만하다. 둘째 수에서는 먼저 대왕의 붕어 후의 세자의 거동을 묘사하고 나서 슬픔에 젖은 모습에 대한 염려의 뜻을 표한 데 이어, 의젓한 執喪으로 인한 안심의 뜻과 嗣王에 대한 하늘의 가호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였다. ‘衣尺若干臨有儼, 祈天永命履无彊’에 嗣王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잘 함축되어 있다. 셋째 수는 전반부에서 세자의 典禮하는 모습에 대한 안도와 함께 冲齡으로 비통에 젖은 세자에 대한 염려의 뜻을 표하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 선왕의 厚恩으로 인한 감격을 특별한 인연을 지닌 물품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토로함으로써 전편을 收結할 준비로 삼았다. “경건하게 새로 서가에 꽂은 하사하신 서책을 받들고, 읍면서 지난날에 상자를 채웠던 임금님의 서찰을 읽네.(虔奉賜書新挿架, 泣看宸札舊盈箱)”라 한 결론은 독자로 하여금 피부적 감동을 느끼게 할 만큼 절실성을 지닌 연이라 할 수 있다.

결단(제192~200구)은 망자인 대행왕에 대한 회포와 永訣의 조의를 토로한 단락으로 앞의 詩意를 총체적으로 수습하여 시상을 마무리한 대목이다. 먼저 대행왕이 인삼과 白朮을 하사하면서 형의 병세를 염려하고, 銀과 산초를 부의로 내리면서 어머니의 祥祭를 조문한 개인적 경험을 슬회하는 말로 시상을 열고서, 그런 분이 붕어해 버린 상전벽해의 놀라움을 표하여 시상을 발전시킨 뒤, 순절하지 못한 채 만사나 짓고 있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로 전환점을 삼고서, 죽을 때까지 尊慕하다가 저 세상에 가서도 시종

하기를 맹세하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翠鬢蓼朮詢兄疾, 紅帕銀椒記母祥’은 감흥을 불러일으킬 만한 호소력을 지닌 활어를 내포한 연이고, ‘苟遂餘生塵刹報, 翩然歸侍白雲鄉’은 무한한 여운이 감돌도록 던져 놓은 永訣語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00운에 이르는 편폭이 큰 장편이면서도 시상이 開合·起伏을 잘 구사한 가운데 원만하게 전개되어 있어, 北宋의 洪邁가 두보·백거이·소식 등의 대가들도 점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미의 중복이 심하다¹⁵⁴⁾고 지적한 것과 같은 결함을 다소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시인의 筆力과 才學은 마음껏 발휘된 장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元인이 “哭挽의 시는 반드시 감정이 참되고 말이 진실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情義가 깊고 도타우면 곡을 하고, 그다지 정분이 없으면 만들 할 뿐이다. 마땅히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짓고 제목에 꼭 맞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입을 열어 읽어 보면 곧 어떤 사람을 조상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야 좋고, 중간에 은연 중 슬피하는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¹⁵⁵⁾라 한 요구에 그다지 부족하지 않도록 만사로서의 미덕 또한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편의 표현적 특성을 대략적으로 지적해 두기로 한다. 이 시는 장편 배율이기 때문에 표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할 것도 없이 100연 가운데 2연을 제외하고는 다 대장을 사용한 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율시의 규칙을 적용받아야 하는 배율인 데다 규모가 큰 장편이기 때문에 율시로서는 금기라 할 관대·평대로 볼 수 있는 연이 17개나 있는 점 또한 지적할 만하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대장의 형성을 위하여 用事, 즉 典據修辭와 비흥을 위한 은유가 매우 많이 사용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서술·용사·묘사를 적절히 배합하여 7언의 율시와 배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雄

154) 洪邁, <詩要點檢>, 『容齋續筆』 권14. “作詩至百韻, 詞意既多, 故有失於點檢者. 如杜老夔府詠懷, 前云‘滿坐涕滂滂’, 後又云‘伏臘涕漣漣’, 白公寄元微之, 既云‘無盃不共持’, 又云‘笑勸迂辛酒, 華樽逐勝移. 觥飛白王岳, 飲訝卷波遲. 歸鞍藉酒馳, 醅顏烏帽側. 醉袖玉鞭垂, 白醪充夜酌. 嫌醒自嚼齏, 不飲長如醉.’ 一篇之中說酒者十一句, 東坡賦中隱堂, 五詩各四韻, 亦有‘坡垂似伏龍, 崩崖露伏龜’之語, 近於意重.”

155) 楊載, 『作詩準範』(吳景旭, 『歷代詩話』 권67 소수). “哭挽之詩, 要情眞事實. 於其人情義深厚則哭之, 無甚情分則挽之而已矣. 當隨人行實作, 要切題使人開口讀之, 便見是哭挽某人方好, 中間要隱然有傷感之意.”

深·壯麗한 풍격을 두루 구유한 장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용사라 할 것이 쓰인 구절이 30여구인 가운데 험박한 전고로 볼 수 있는 예가 秦良人, 歐陽脩의 濮議, 禹임금의 塗山芾鳥, 祭楚昭王, 唐珣의 種冬靑, 鄭所南의 『心史』, 齊 宣王의 易羊, 殷의 蓍蟻 등에 불과할 정도로 용사를 비롯한 비유적 표현보다는 記事的 서술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체험·견문을 바탕으로 하여 대행왕의 행적에 대한 紀實에 충실하고자 한 미덕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남인들의 백운만사와 달리 본문의 중간에 더러 註釋을 붙여서, 망자의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매우 특이한 일화·행적에 대하여 풀이한 사례가 없다는 점인데, 이는 시인이 망자와의 개인적 경험보다는 망자에 대한 공론적 면모의 부각에 더 무게를 둔 데 말미암을 것으로 보인다.

석재의 <건릉만사>가 보여 준 이와 같은 압운·평측·대장·표현 등 형식적 특성, 의미구조 및 그 세부적 전개양상, 표현적 장점은 7인 200구에 이르는 군주를 위한 곡만사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제약과 난점을 뛰어넘어 가작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데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權 萬, 『江左集』.
金得伸, 『終南叢志』.
傅若金, 『壬後集』.
申光河, 『震澤集』.
楊 載, 『詩法家藪』.
吳景旭 편, 『歷代詩話』.
尹行恁, 『碩齋稿』.
李獻慶, 『良翁集』.
丁範祖, 『海左集』.
蔡濟恭, 『樊巖集』.
蔡彭胤, 『希菴集』.
洪 邁, 『容齋續筆』.

王 力, 송용준 역, 『중국시율학』 2, 소명출판, 2005.

金相洪, 「世界 最長 漢詩 任叔英의 <述懷> 연구」, 『韓國 漢文學의 照明』, 이회문화사, 2003, 205~298면.

白丞鎬, 「樊巖 蔡濟恭 文學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2006.

呂運弼, 「長篇挽詩의 한 면모」, 『백양인문논총』 18, 신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5~42면.

The Hundred Rhymes Elegy Condoling with Jeongjo

Yeo Woon-pil

The Namin poets' tradition of a hundred rhymes elegy come from Hiam Chae Paeng-yoon's poem had condoled with Songgok Yi Seo-woo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is a great queer event in the history of Sino-Korean poetry. The existence of a hundred rhymes elegy become known written by Namin poets only. But the fact that a work by a Noron poet was solemnly is worth notice. <The Elegy for the Keonneung> is a hundred rhymes elegy written by Seokjae Yun Haeng-im. This poem is worth checking for the reason of a work written by Noronsipa poet and also that of a condoling the King Jeongjo clearly.

This thesis is a research for translation with notes and a critical study for characteristics of form and contents in it. By checking formal apparatus, meaning structure and expressive merits, this long poem as seven letters Baeyeul is worth being estimated an excellent work with fulfilling the nessesary conditions for not only as an general elegy but also as a monody for condoling a great king.

Keywords: a long piece Baeyul, hundred rhymes elegy, Seokjae Yun Haeng-im,
The Elegy for Keonneung, the King Jeongjo, an excellent work

접수일자: 2014. 9. 30.
심사기간: 2014. 10. 1.~2014. 11. 10.
게재결정: 2014. 11. 10.